

#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중단촉구 건의문

의안 번호	
----------	--

제안년월일 : 2001. 3. 15

제안자 : 산업경제위원장

## 1. 주 문

우리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농촌과 우리 민족의 생명산업인 농업을 지키기 위하여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체결의 중단을 촉구, 건의하기 위함

## 2. 제안 이유

우리의 농업은 그동안 개방농정으로 인하여 농업의 다원적 기능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농업채산성이 악화되어 농가가 빈사상태에 빠져 있는 상황임에도 농업강국인 칠레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취약한 농업기반전체를 붕괴시켜 농업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저지하기 위함.

## 3. 참고 사항

-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추진상황

##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중단 촉구 건의문

존경하는 김대중대통령(국회의장, 새천년민주당대표최고위원,  
한나라당총재, 자유민주연합총재권한대행, 외교통상부장관,  
농림부장관)님께

21세기 복지국가를 건설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생명산업인 농업은 그동안 개방농정으로 인하여  
식량안보는 물론 농업의 다원적 기능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농업채산성이 악화되어 농가가 빈사상태에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포도, 사과, 배 등 과수산업과 돼지고기, 닭고기  
등의 축산물 생산 및 수출에 있어 세계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칠레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농업의  
위기가 고조되어 있는 상황을 외면하고 농업기반 전체를  
붕괴시켜 농업을 포기하라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농업경쟁력이 취약한 우리나라와 농업생산에 유리한 자연조건을  
갖춘 칠레간에 자유무역협정(FTA)은 마치 어른과 어린이가  
대등하게 겨루는 무모하기 짝이 없는 협정으로,

WTO와 IMF로 만신창이가 된 우리의 농업을 더욱 빠져 나오지 못할 수렁으로 밀어 넣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분명하므로 농업부문에 관한 한 적어도 협상대상에서 제외시키거나 불가피한 경우 WTO 다자간 협상 이후로 미루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국익이 된다고 하는 공산품의 소비시장인 칠레는 인구가 우리의 1/3 수준이고 1인당 국민소득도 우리의 절반 수준으로서 외형상 구매력이 우리의 1/6 정도로 취약하기 이룰데 없으며,

농·축산물의 대 칠레 수출은 거의 없는 반면 수입량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서 우리농업의 큰 희생 위에 공산품 교역의 작은 이득은 불을 보듯 뻔한 데다 칠레가 공산품 최강국인 일본과도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하고 있어 우리공산품 시장의 전망자체가 아주 부정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유무역협정(FTA)이란 경제통합의 가장 기초적인 형태로 협정체결 당사국간의 역내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경감하거나 철폐함으로써

역내시장에서 상품과 서비스의 국경간 이동을 자유롭게 하는 것으로, 자국의 이득이 있을 때 하는 것이며 희생이 큰 산업은 협정에서 제외하는 것이 국제적 관례요 추세인 것입니다.

우리농업의 일방적인 희생을 감수하면서 아무런 실익이 보장되지 못하는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강행하려는 것은 우리농업을 말살하려는 망국적인 발상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충청북도의회 의원일동은 150만 도민과 함께 우리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농촌과 우리민족의 생명산업을 지키기 위하여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한·칠레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 건의합니다.

2001년 3월 일

충청북도의회의원 일동